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정의로우신 하나님 성경:욥기40장1-14절
(Tag:정의,신정론,구약성경,욥기,악한사람)

-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 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6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 8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 9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 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 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써서 은밀한 곳에 돌지니라
-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 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 40:1-14)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정의에 관심이 크시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정의에 관한 것에 관심이 크시며 정의롭지 못

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세상을 이처럼 방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욥처럼.

오늘 본문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

욥은 참으로 당대에 정의로운 자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욥은 순전히 하나님과 마귀와의 포커게임에서 피해를 당한 자다.

그리고 패는 욥의 원망하지 않는 생활이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은 욥에게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으셨고, 사후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일은 잘 매듭이 지어졌는데, 문제는 욥의 뒤끝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었다.

친구들의 부추김이 화근이 되었다. 물론 친구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일주일간을 욥을 위해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애도의 기간동안 친구들은 도무지 욥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다.

친구들은 틀림없이 욥에게 뭔가 숨겨진 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였다.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경찰관이 되고 말았다.

친구들은 네가 당한 것은 필시 원인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그 원인을 들어야 속이 풀리겠다고 다그쳤다.

욥도 시원스럽게 자기의 숨겨진 죄악을 풀어내고 싶으나 도무지 그런 죄악을 기억해 낼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가 당하게 된 원인은 그가 극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닌가?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답해 주시고 있다.

하나님은 욕의 가치관, 신학, 관점을 한 단계 올려 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내셨다. 하나님의 관점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로서 욕의 모든 답답함은 해갈이 되었다.

하나님은 최선의 조건 속에 사람을 두시기도 하셨고, 최악의 조건 속에 사람을 두시기도 하셨다.

그런데 오히려 최악의 조건에서 사람이 더 창조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보셨다.

나는 최선의 조건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최악의 조건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까?

친구들은 악한데, 나는 선할 수 있을까?

선한 자가 질적으로 변해서 악해질 수 있을까?

악한 자가 질적으로 변해서 선해질 수 있을까?

나는 전자일까, 후자일까?

악을 행한대로 바로 응징하는 것이 정의일까?

선을 행한대로 바로 상을 주는 것이 정의일까?

만약 그 효과가 지연된다면 왜 그럴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악을 파헤쳐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아니면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실현 메카니즘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일까?

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옴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점이 결국 자기를 고민 중에 몰아넣고 말았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며, 인권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 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파생되었을 뿐이다.

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찌서 은밀한 곳에 돌지니라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 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 40:1-14)

-옴이여,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해 보거라. 네가 네 뜻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너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즉, 정의의 실현이 구원은 아니라는 뜻.

-하나님은 정의 실현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구원에 가치를 두셨다는 것.

-구원의 가치가 정의 실현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더 귀하고 상급도 크다는 것을 뜻함.

-정의 실현이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의 실현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신다. 단지 우선적이지 않다는 뜻.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지극히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신비 말씀: 욥기 40장 15-24절

15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혜뿔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6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19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20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21 그것이 연 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었드리니

22 연 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벼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23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24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켈 수 있겠느냐 (욥40:15-24)

생물들에게 정의는 무엇인가?

원래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 정의.

아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신음중.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님.

우리가 동물들을 길들이고, 종처럼 다스려야 함.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됨.

옅기에서 이렇게 말씀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정의에 대한 관점, 삶에 대한 관점을 전 세계적으로 넓히시기 원하심.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앞당기는데 두심.

여전히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다스림에 신경을 쓰기 원하심.

태양열, 농업, 임업, 수산업 등.

